

내신성적 중위권도 수도권대학 갈수있다

12개대학 적성검사 4790명 선발
학생부 60% 대학마다 차이 있어

2020학년도 대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학교 내신성적 위주로 치러지는 수시모집 중 내신 중위권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적성고사 전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대입에서 적성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서울 소재 삼육대·서경대·한성대와 경기도 소재 가천대·성결대·수원대·평택대·한신대, 대전·충청권 소재 고려대·세종·을지대·한국산업기술대·홍익대·세종 등 총 12개 대학이다.

적성고사 전형 선발인원은 지난해 보다 151명 증가한 4790명으로 이 중 서경대(+86명), 한신대(+42명), 평택대(+41명), 성결대(+34명)는 인원이 늘었고, 고려대 세종(-40명), 수원대(-10명), 한성대(-2명)는 작년보다 모집인원이 감소했다.

전형 방식은 학생부 60%에 적성고사 40%로 동일하지만, 학생부 반영 방법과 적성고사 유형 등 평가 방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별 전형을 파악해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적성고사 전형은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인 내신 영향력은 크지 않다. 아울러 적성고사 형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유사하지만 나이도는 수능보다 쉽게 출제돼 수능 시험과 함께 대비할 수도 있다. 내신의 경우 대체로 3등급~5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 이에 따라 낮은 내신성적은 적성고사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입시



지난 4일 서울 상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천대와 수원대의 경우 3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는 불과 6점이고, 평택대와 성결대와 함께 적성고사 두 문제로 만회가 가능한 수준이다. 서경대, 한국산업기술대는 적성고사 3 문제 정도로 내신의 점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성고사 부담이 큰 대학도 있다. 내신 점수가 낮은 학생일 수록 학생부 실질 영향력을 감안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마다 내신 반영 교과의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 내신 등급이 각 학교마다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대학별 내신 계산 방법에 따라 자신의 내신 점수를 확인하는게 좋다.

적성고사 유형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출제 과목의 경우, 삼육대, 성결대, 수원대 등은 국어와 수학을 반영하고, 가천대와 을지대는 국어, 수학과 함께 영어도 반영한다. 홍익대 세종은 영어와 수학을 반영한다. 고려대 세종 인문계를 제외하면 모든 대학에서 수학을 반영하고 실제 평가에서도 수학 과목에서 변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목함지뢰에 다리 잊었는데 전상 아닌 공상

형평성 잃은 보훈심사 개선 목소리

보훈처, 비난 거세지자 재심의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다리를 잊은 하재현 예비역 종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군안팎에서는 '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 기준이 둑지 않다'는 거센 비난이 나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17일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유공자 심의를 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종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잊었다.

비무장지대 일대는 행동규칙이 전시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육군은 하종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판정 결과를 하종사에게 통보했다. 판정 결과를 접한 하종

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처우에 있어 공상과 전상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다만, 군인들은 전상을 더 명예롭게 생각한다.

전상이 적과의 교전이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상은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하종사의 부상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 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규정을 적용해, 공상 판정을 내렸고 같은 달 23일 판정 결과를 하종사에게 통보했다. 판정 결과를 접한 하종



하재현 종사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육군 1사단 수색대 이종명관에서 열린 목함지뢰 도발 사건 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는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판정 재심의 요청을 올렸다.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형평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in@

블라인드 채용 한다지만… 절반이 학벌 본다

사람인, 기업 337개사 설문
선호대학은 서울소재 4년제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 2곳 중 1곳의 채용 평가에서 학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사람인이 기업 337개사를 대상으로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8.1%는 '좋은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지원자가 노력한 성과여서'(5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벌에 따른 역량 차이가 있어서'(43.2%), '객관성이 있는 조건이어서'(37.7%), '기준에 채용 시 만족도가 높아서'(11.7%), '활용 가능한 인맥이 많아서'(9.3%) 등을 들었다.

가장 선호하는 지원자의 출신 학교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45.7%)을 꼽았다. 이어 '지방 거점 국립대학'(24.1%), '상위 10위권내 명문대학'(19.1%), '일명 스카이 대학(서울/연세/고려대)(3.1%)' 등의 순이었다.

선호하는 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 중 '지원자를 더 꼼꼼히 평가한다'는 응답이 66.7%(복수응답)였고, '전형 진행 시 우선순위로 선정'

(20.4%), '가산점 부여'(18.5%) 등의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채용 평가 비중에서는 평균 약 32%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10곳 중 2곳(21%)은 다른 자격조건이 모자라도 학벌이 우수해 채용한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학벌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90.9%가 '업무 능력과 크게 연관이 없어서'를 들었다. 이밖에 '기준 채용 시 만족도가 낮아서'(10.9%), '경영진의 방침이어서'(5.1%), '기존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서'(4.6%)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구직자 30% “면접서 결혼여부 질문 받아”

개인정보 물으면 최대 500만원
입사지원서 정비한 기업은 49.8%

대기업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에 따라 기존 입사지원서를 정비한 기업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크루트가 상장 기업 699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귀사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정비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는 기업은 49.8%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비 중'(29.4%)이나 '정비 예정'(19.4%)이라고 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정비를 마쳤다는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66.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중견기업(종업원 300명~999명, 58.2%), 중소기업(종업원 299명 이하, 39.5%) 순이었다.

지난 7월 17일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해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를 수집 및 요구하는 것이 금지됐다.

결혼여부나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최대 500만원의 부정 채용 청탁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집이나 요구가 불가한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도,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구직자 대다수(87%)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질문은 ▲ 결혼여부(30%)였고, 특히 성별 교차 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의 61%가 결혼여부 질문을 받은 반면, 남성 구직자는 39%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혼인여부에 이어 많았던 개인정보 질문은 ▲ 출신지(23%) ▲ 부모직업(20%) ▲ 용모(15%) 순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삼육대 학술정보원

RISS API보급기관 선정

삼육대 학술정보원은 국내 최대 학술 연구정보시스템 RISS의 상호대차 및 소장정보 API 보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사업은 대학도서관 업무관리 시스템(LAS)에 RISS API를 연계·보급하는 사업이다. RISS의 개방 및 확대를 통해 학술정보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도서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삼육대 학술정보원이 이번 사업으로 보급 받는 API는 해외논문구매대행(EDD S)과 상호대차(WILL) 등 2종이다. 3천여 만원의 설치 및 보급 비용 일체는 KERI S가 부담한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RISS 사이트에 방문해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삼육대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RISS 학술정보 검색, 문헌복사, 해외논문구매대행, 상호대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처리상태, 제공 가능한 소장처는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현경 기자 son89@



한국외대 재학생, 'FTA 활용대회' 우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IFTA팀(장민서, 박주성, 곽해리, 김소형, 한혜정)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생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한국무역협회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FTA를 활용한 기업의 가상 성공사례 또는 기업이 활용 가능한 FTA 활용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서류 심사 후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에 대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시상 팀이 결정됐다.

한국외대 장민서 학생은 "높은 수준의 인적, 기술적 자본을 가진 중소기업 이더라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한계를 맞닥뜨릴 수 있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과 교수님들과 해외 영업 및 물류 현직자, 전년도 수상자로부터 조언을 받아 완성도 높은 가상 성공사례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